



전주 위센터 임상심리사 7명, 기부 동참

전북도교육청 소속 위(Wee)센터 임상심리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에 위한 기부 활동에 동참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코로나19로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등 교육 구성원들의 마음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도내 임상심리사 7명이 순찬군 하늘빛 그룹홈에 심리평가 치료비 14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상심리사는 학교 현장에서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해 심리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교사, 학부모 등에게 상담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다. 기부자 대표인 전주 위(Wee)센터 임상심리사 신윤희 씨는 "소수 직종이지만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면서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위(Wee)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이주여성 대상 음식 만들기 체험 '호응'

전북대학교 IINC+사업단(단장 고희영)이 지역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토속 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름다운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형관)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매회 12명의 이주 여성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24일 오후 3시 사회적기업 제이피랩에서 이 프로그램의 개강식을 갖고 첫 번째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험에서는 제이피랩 전석진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참쌀김부각 및 콩조림을 만들어보는 교육이 진행됐다. /정은성 기자

‘삼천이’ 수익금과 매일 3200원씩 저축해

삼천2동 두부공장 최승해 대표,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전주시 삼천2동에서 두부공장을 운영하는 최승해 대표가 지난 24일 삼천2동 주민센터(동장 정진숙)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한 성금은 최 대표가 '삼천2동' 동명에서 착안해 매일 3200원씩 저축한 돈과 본인이 운영 중인 두부공장에 지난 4월 말 물고추 분쇄기계를 들여 "삼천이"라 이름을 짓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모아 마련했다. 최 씨는 평소 "값없이 봉사하려면 지속적인 수익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해 대표는 "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제가 이만큼

자리 잡기까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삼천2동 지역주민들이 도움을 주셨기에 가능했다"며 "제2의 고향 삼천2동 주민들에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삼천2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지역사회회보장협의회 위원장으로 역할하고 있는 최승해 대표는 이번 성금 기탁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보리쌀 100포, 햇빛 가리개 천막 3동 등을 구입해 기증했으며, 삼천2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랑이 꽃피는 병장고"에 매주 두부와 콩나물을 6년째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 펜싱 선수들, 전국대회서 다수 메달 획득

전북 펜싱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5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해남에서 열린 '제50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겸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북 펜싱 선수들이 은메달 3개와 동메달 14개 등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사브르 단체전에 나선 이라리고는 접전 끝에 아쉽게 저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전북제일고 박인고 익산시청 황산아도 사브르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다. 사브르 단체전에 나선 익산시원준과 전북제일고, 예페 단체전에 출전한 이라리중등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정은성 기자

예수병원 김철승 원장,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예수병원은 연합매일신문사와 대한민국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7회 대한민국 인물 대상에서 김철승 예수병원 원장이 사회공헌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물 대상'은 기차단과 전문 교수진,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김철승 병원장은 평소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선도적 정신과 리더십으로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는데 기여한 바를 인정 받았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보호의 달 '참전용사 어르신' 위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참전용사들을 방문해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71년전 6.25 전투현장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6.25전쟁 71주년을 계기로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지원요구를 늘려 전북은행 경영지원본부 직원 일동이 참여했다. 전북은행 경영지원본부 직원 일동은 전북동부보호자협회 전주지역 일대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 열두 분을 추천 받아 전자레인지, 냉장고, 전기장판, 선풍기 등의 생활가전과 쌀, 리본 화장지 등의 생활품을 직접 구매해 참전용사 가정에 방문 전달했다. 또한 어르신들 밀반찬 및 식사를 준비해 전달하며 담소를 나누고 집안 청소 및 정리 등 환경정리도 진행했다. /김윤상 기자

전교훈 전북청장 · 이윤심 동부보훈청장, 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행사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전교훈)과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이윤심)은 지난 25일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손영순(94세)님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고 유족을 위로했다. 이날 '명패달아드리기' 행사는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조국을 지키다 산화하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교훈 전라북도경찰청장이 직접 유족의 자택에 명패를 달아드리므로써 의미를 더했다. 명패를 달아드린 손영순님은故 라희봉 경감의 배우자로, 라희봉 경감은 국가보훈처 선정 6.25전쟁영웅(2012년 11월)이자, 전쟁기념관 선정 호국인물(2020년 11월)인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6.25전쟁영웅 중 한 분이다.故 라희봉 경감은 1949년 7월 전북 경찰에 임용됐으며, 1951년 1월 순창경찰서 생지면의 지서장으로 부임해 공비토벌에 많은 전공을 세웠다. 그러던 중 1952년 11월 20일 생지면 뒷산 오두봉고지에 공비가 침투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색작전을 벌이던 중 '행미연대'와 '외팔이부대'를 포함한 약 700여명의 공비들과 마주쳐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이때 적이 투척한 수류탄에 중상을 입고 후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사흘만에 전사했다. 순창군 생지면 주민들은 그의 애석한 죽음을 기리고자 아직까지도 생지면 오두봉을 '라희봉고지'라 부르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여성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 강사 간담회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내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윤여 센터장)는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사간담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가 지원하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여성새일센터)가 추진하는 직업교육훈련 운영과 관련해 전문·취업대비·소양교육 강사 20여명 대상, 교육생 관리 및 취업처 확보, 직업교육훈련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 과정을 올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www.jmci.com 2004년 11월 23일 등록(약기)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주)전주매일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945-4113	중앙지사 010-9388-65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63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4227	일성지사 010-9942-2725
산성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안주지사 246-6655	진안지사 433-3364
호지지사 010-6645-9936	팔복지사 253-6944	남원지사 632-0935	장흥지사 636-3757
	군산지사 010-6739-0338	순창지사 633-0444	장수지사 010-3322-6157
	익산지사 632-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